

더불어 위하며,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이승렬 목사



독일교회의 사회봉사적인 사명과 책임을 위하여 주로 쓰는 표어가 있습니다. "für einander, miteinander"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서로를 위하여, 서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즉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생과 상생의 삶을 뜻합니다. 기독교의 정신과 핵심은 섬김에 있습니다. 즉 이 섬김은 디아코니아(Diakonia)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뉘어지고, 구별되지만 결코 다른 맥락이 아니라 한 맥락에서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pietas)은 경건성을 나타내는 예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웃사랑(caritas)은 사회봉사적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건과 사랑의 섬김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두 개의 기둥과 두 개의 날개와 두 개의 바퀴와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교회는 이 두 가지 섬김이 모두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함줄함울의 의미 또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운다는 정신이 결코 디아코니아적인 의미와 동떨어진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봉사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손과 발을 움직여 주님이 섬기듯이,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모범적인 본을 보여 주신 것처럼 직접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은 다분히 마음과 물질로 섬기고 손과 발은 자신만을 위하여 아끼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는 많은 교우들이 공동체적 의식과 연대감이 약화되고 있고, 믿음의 행함이 약해지는 것 같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도왔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태풍 '루사'로 인해 고통 당하였던 강원도 삼척시와 태백시의 수많은 수재민들을 위하여 물질과 직접적인 봉사로 섬겼습니다. 최근에는 수재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하여 모았던 의류, 이불 등과 함께 수재민 300가정에게 김장김치 20Kg씩 삼척중앙교회를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태백시의 폐광촌에서 수해를 만난 많은 수재민들의 집을 고치고, 새로 짓는 프로젝트에 우리 교회가 지원한 재정 지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해비타트(사랑의 집짓기 운동)지부는 2003년에 태백과 삼척 지역에 수재민들을 위하여 사랑의 집짓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운동에도 우리 주님의교회 교인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교회는 새 시대를 만나,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정신과 전통을 새로운 차원에서 힘 있게 살려나가고 새롭게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교우들이 봉사하는 자리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고 섬겨야 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에 집착하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한 해를 우리는 믿음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삶은 곧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루터는 사랑은 믿음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열매 없는 믿음의 삶은 헛된 믿음일 것입니다.

* 지난 2년간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이승렬 목사님은 2003년 1월 1일 부로 대치동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함 줄 함 울

함줄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40호(격월간)

발행일 2003년 1월 1일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우편번호 138-220

(정신여중 · 고교내)

tel. 02-416-5181 ~ 2

fax. 02-416-518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rd-church.or.kr>

차 례

1

더불어 위하며,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이승렬 목사

2~4

특집 : 2003년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 소망/ 김혜연
기억에 남는 새해가 되기를/
이동희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 유사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옥윤화
끝내주게 멋진 하나님과 춤추고
싶다/ 김규화 집사

5

군선교사 훈련 비전캠프를 다녀
와서/ 고이석

6

선교지에서 온 편지/ 정웅진 목사

7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읽고/
하화주 집사

8

전쟁과 성경 / 김수호

9

변경된 새로운 기독교 용어 1

10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신광철
마음의 씨앗/ 박유진

11

기도해 주십시오/ 강석영 목사

12

성경퍼즐

성탄절 기도/ 정해춘 안수집사
교회소식

새해 소망

김혜연(소년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6학년이 됩니다.
6학년 언니 오빠들은 중등부가 되고 5학년은 6학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마음도 자라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건강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얻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꼬불꼬불한 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은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하시고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남게 해 주세요.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세요.
남을 더 생각하며 남을 더 존중하면서 그 누구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생각만으로만 판단한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고쳐주세요.
하루하루 성경책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세요.

기억에 남는 새해가 되기를

이동희(중등부)



사실은 여러 번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단 한 번도 "새해에는..." 하는 각오나 계획을 생각해 보지 않은 기막힌 중딩이기 때문이다. 혹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것은 그때그때 지나가는 숙제 정도로 생각했지 나에게 아무런 부담도, 책임감은 더더욱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처음에는 엄마가 써 주시길 하고 버텨도 보았지만 교회 식구 모두가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합줄함울에 글을 쓴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의 약속이라는 아빠의 말씀에 엄마한테 대신 써달라고 조르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짐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신다는 말씀에 용기도 생겼다.

2003년에는 중등부 회장직을 맡고 보니 정말 예전의 나의 모습은 부끄럽기만 하다. 주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공부보다는 선생님께서 사주시는 떡볶이가 더 기억에 남았고, 전도사님 말씀보다는 친구들과 나누는 잡담이 더 달콤했던 평범한 ^^;; 중딩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200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꼭~ 다짐하고 싶다.

첫째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중등부 동생들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하겠다. 손천숙 권사님과 함께 해왔던 강남병원 봉사활동도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병으로 고통 받는 그들과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둘째는 나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해로 정하고 싶다. 성경은 신약을 꼭~ 한 번 읽을 계획이다. 고등학교에 가면 학교 공부가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더욱 없을 거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접수해서 한 달에 2권씩 읽을 계획이다. 그래서 걸 모습과 함께 속 모습도 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족하지만 중등부 회장 자리에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중등부 동생들, 친구들과 잘 어울려 정말 기억에 남는 2003년을 보내고 싶다. 다시 한 번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2003년 새해를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라는 전도사님의 전화를 받은 후 지난 2주간의 나의 생활은 늘 마음 속 한구석에 차지하고 있는 부담감이 있었다.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

유사랑(고등부)



언젠가 한 책을 읽다가 "우리는 현재(present)를 선물(present)이라고 부른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절을 읽으며 문득 제 자신은 너무 현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해에는 언제나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산다면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도 보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수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해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오길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제자들을 용서하신 주님처럼 제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볼 것입니다. 참 용서가 주는 평안함을 느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말할 것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해에 소망하는 것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눈은 깨끗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고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독한 사람이 되어도 천국에서는 빛날 그 노력을 용기 잃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항상 위와 같은 다짐들이 반복되었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미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깨달은 새로운 사실 때문에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가오는 새날도 나를 키우려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고마운 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년 이맘 때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계획들로 그 다음 해를 웃으면서 준비하고 있을 제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행복해집니다.

2002년은 제 짧은 인생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힘들었지만 그 두 배로 제가 성장한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들을 곧잘 미루고 나 자신 혹은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들을 소홀히 했으며 남에게 마음을 담아결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새해에는 겸손하게 생활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옥윤화(청년 1부)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3년 전 제가 주님의교회 청년부에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교회 청년부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알게 하시고, 이곳에 적응하기에 바빴던 제가 지금은 청년1부의 회장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해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3년 간, 온갖 열등감과 비교의식, 그리고 나태와 자만 등의 개인적인 문제들로 어두웠던 제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엡1:4)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요15:16)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과 세상이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속삭여 주셨습니다. 저의 그런 고민과 힘들 가운데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부분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년부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선 제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회장이라는 귀한 섬김의 자리를 결국 제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솔직히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로서 그만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요? 믿음이 깊은 것도 아니고, 청년들 앞에 나와서 말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을 이끌만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며, 청년부를 품을 만한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청년부를 대표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자신 없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병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출4:11-12)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선 저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저의 약함과 부족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으로 부르시니, 저는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너무나도 어설픈 제 모습이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로써 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의 교제를 할 때, 대화가 있어야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외면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을 아버지께 여쭙고 그 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청년부의 필요와 방향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아는 민감함을 소망합니다. 새해 2003년, 우리 청년부와 각 지체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내주게 멋진 하나님과 춤추고 싶다

김규화 집사(희락 9구역)



2001년 3월 함즐함울에 '조금 먼곳에서 교회를 섬기면서'를 기고한 후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말씀 묵상 모임을 하면서 저는 "교회에서 더욱 공급받고 싶다"는 갈망을 하게 되었고 매주 화요일 '복음의 삶'을 통한 목사님의 가르침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의 한 해였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화요기도모임을 통해 기도 속에서 지경을 넓히시려는 하나님으로 더욱 감사드렸고, 2월에 참석한 C.C.C. 주최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여하여 그간 제 삶의 여정에서 풀리지 않았던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의 원인을 알게 되었으며, 보잘 것 없게만 여겨졌던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씩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일들이 자주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너무나 힘겨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이길래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하여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여 승리한 후 기뻐하라"는 임영수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자꾸 제가 무기력하게 느껴졌고 결국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고 자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다가 오셔서 지금까지의 여정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이셨다며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성령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도,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라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눈에는 감사의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처음 주님의교회에 등록했을 때 저의 교구 목사님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제 눈 앞에서 기뻐 노래하시는 하나님이 또렷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노래하시는 그 분 앞에서 새해에는 춤을 추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춤이 찬양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 여러분께 권고해 드립니다. 새해에는 저와 같이 기도하시지 않으시렵니까?

구역 식구들이 모이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만이라도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가 먼 곳에 계신 분들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모일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 많은 분들이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기뻐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말입니다.

군선교사 훈련 비전캠프를 다녀와서

고이석(청년 2부)



처음 비전캠프에 다녀온 후 느낀 점을 글로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무척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하기엔 부끄러운 점이 많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가족 이외엔 누구에게도 얘기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런 당혹스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군선교사 비전캠프에 갔다오기 전과 후의 변화를 간략하게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다.

내가 지난 8월에 있었던 10기 비전캠프에 가기 전에, 나는 25살 먹은 대학졸업생 신분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하면 군생활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진짜..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2년 넘게 군에서 봉사해야 하나, 군대라는 곳 안 갈 수만 있으면 가 싫다” 등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군대를 좀더 늦게, 그리고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면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시면서 커다란 포스터 한 장을 거실에 붙여 놓고선 나에게 군대가기 전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가 있는데 한 번 가보지 않겠느냐며 은근히 권유하셨다. 나는 본래 어머니의 말씀이나 제안을 웬만하면 새겨듣고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다. 왜냐하면 친구 등 그 누구의 말이나 제안보다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진로에 대한 고민과 여러가지 생각이 많았기에 머리카락 식힐 겸 바람이나 쐬고 오자는 생각으로 나는 순순히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며칠 후, 경기도 소재의 수양관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그 버스에 탄 남자들 중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다. 내가 늦게 가긴 늦게 가나보다 하는 생각을 하며 혼자 웃었던 기억이 난다. 버스 안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며 군선교사로서의 소망을 갖고 이 캠프에 참가하는 친구들, 오기 싫었는데 부모 등 주위 사람에게 떠밀려 온 친구들, 나처럼 별 생각없이 가벼운 맘으로 온 친구들 등 각자 나름대로의 사연과 이유를 갖고 이 캠프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멀어지기 시작했

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며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예배에는 참석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교회에 안 갈 때마다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 맘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맘 아주 깊숙한 곳에서는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절대자를 간절히 찾고 있음을 때때로 의식할 수 있었기에,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의미에서 교회에의 발길을 끊지는 않았던 것이었다.

하여튼 수양관에 도착해서 군대 내무반 비슷한 숙소에 짐을 풀고 숨가쁜 일정이 시작됐다. 그곳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이어서 군대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한편으론 칙칙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흥미를 느꼈다. 일정에 따라 여러 군종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엔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내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분들의 말씀은 솔직하고 명료하고 힘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필기도 했다. 그 얘기가 재미있어 오히려 애기였기 때문에 놓치기 아까웠다. 지금 돌이켜보건 내 의 확 닫혔던 마음이 이 때부터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다.

도착한 첫날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그동안 주로 뒤쪽에 앉았는데 이번에는 앞쪽에 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왕 하는 것 이 시간에 몰입하고 싶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내 마음의 기동을 건드리는 힘을 느꼈다. 내가 부정해왔던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힘을 느꼈다. 내 자아는 그 시간, 그 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경험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나를 고백하게 만들었고 그동안 의심하고 부인해왔던 것을 인정하게 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시원하고 아주 편안해졌다. 정말 오랫동안 날 짓눌러왔던 그 어떤 것에서 벗어난 기분을 느꼈다. 그 다음날도 즐겁고 재미있게 지냈다. 남자들끼리 손잡고 새벽까지 기도도 해보고, 나로서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것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걸 처음 알았다. 내가 해야 할 일도 많다는 걸 알았다. 궁극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도 아주 많다는 걸 알았다.

다음날 아침 즐겁고 활기찬 마음으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탔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했다.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셨음은 물론이다. 지금은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가 바뀌었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때때로 옛날 습성이 튀어나와 혼란스럽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군대에도 곧 가기로 했다. 이제는 “군대에 가서 뭘 할까”로 고민한다. 나라 탓은 더 이상 안한다. 이 글을 읽는 군입대를 앞둔 형제들이나 그들의 부모님께서는 군 선교사 캠프에 한번 참가해보기를 권한다. 거기선 꼭 군중병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군중병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기쁜 일이며 산을 보며 바람도 쉴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을 주려 하신다. 그것을 받느냐 거부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나는 받아들였고,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 '황금어장' 군선교부에서 봉사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연락처 이종석 안수집사 011-272-0324)

선교소식

선교지에서 온 편지

정용진 목사(안산 소금밭품꾼선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온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본 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금밭품꾼선교회(Mission for Sogumbatt Workers)는 6년 전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소금밭교회를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 주일 예배와 섬김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중단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안산에는 반월, 시화 양대 공단에 약 5,000여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1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 가운데 2만 명이 훨씬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철새처럼 모여들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의 노동으로 매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교회와 선교회는 나그네 형제들의 아픔과 외로움에 동참하는 일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로 알고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꼭 1년 전 서울 주님의교회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예배 장소와 쉼터를 마련하여 본격적인 선교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시 한번 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년간 일천여 명의 나그네들이 드나들며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현재 재적 150명, 주일예배 70여 명의 파키스탄·인도·우간다·콩고·나이지리아·페루 등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함께 초대 교회를 닮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귀 교회의 선교위원회에 소속된 교우중 자원하여 매 주일 한글교실(박형기 집사)과 컴퓨터 교육(임채권 집사)을 하고 있으며 차량 봉사(이진원 집사) 및 반주(최명숙 선생) 등을 통하여 예배와 교육의 원만하고 활발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파키스탄의 라호르 지역에 재봉 교실을 개설하고(재봉틀 10대, 월 15만원 운영비 지원) 금년에는 아프리카 우간다에도 시작하여 많은 여성들이 생활 자립을 목표로 열심히 배우며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소금밭교회와 품꾼선교회는 3년 전 지하철 4호선 안산 신도시 고잔역 앞 종교 용지(140평)를 수자원공사로부터 기적적으로 분양 받아 2003년 2월에는 새 성전과 나그네 쉼터를 건축하려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복된 계절에 주님의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선교회의 주요사역 내용이니 이 귀한 선교사역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터 마련 및 숙소 마련을 위한 도움, 산업 재해를 당한 형제들을 위한 도움, 비자 연장 및 출입국업무 도움, 환자 발생시 기독교사회원 병원 안내, 송금·편지·소포를 위한 은행 및 우체국 업무 도움, 미용, 목욕탕 안내, 문화행사 및 관광, 후드뱅크를 통한 음식물 전달, 임금 상담, 국가별 모임을 통한 단합 체육, 친교 행사 그리고 목회자 양성, 신학교 추천 및 장학금 마련 전달 등입니다.

2002년 12월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읽고

하화주 집사(자비 6구역)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대부분 방언과 같은 은사로 한정시킨다. 온 몸에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것을 마치 이단의 영역처럼 은근히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점차 메마르고 형식적인 신앙을 안타까워하면서, 특이하고 강렬한 체험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열망마저 분주한 일상에 파묻고 산다. 이러한 모습들이 성령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자화상이다. 따라서 이 책이 제시하는 신앙적 체험의 가치와 삶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기독교도인들이 깊은 공감감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낯설고 당혹스러운 느낌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성령님과 전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 분을 배워나가는 저자 베니히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때, 신앙의 색깔과 수준에서 다르다고 느끼는 거리감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의도는 그가 알고 교제하는 성령님을 우리도 알기를 원하는 안타까움과 열망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눈으로만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입으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우리에게 베니히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첫째, “당신은 성령님을 좋아하는가?” 만일 이 질문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당신은 당신의 경험으로 성령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셋째, “성령님과 더불어 친교하며 동행을 시작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의 언어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교회에 다닌 세월이나 겉으로 보이는 열매와는 달리 그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책에서 베니히가 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성령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 자체를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향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성령을 가슴으로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다.

베니히가 지적하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나 성령 충만을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의 영역으로 착각한다. 또한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 “나에게 더 많이 내려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진정한 출발점은 우리의 자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과 그분의 귀하신 성령님을 포용할 수 있는 자발성이다. 완전한 항복은 완전한 충만함을 가져오며,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친교를 가져온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 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순간, 성령님이 그 분의 손을 당신 위에 얹으실 것이고,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갑자기 당신은 자신이 성령님 안에 있는 —그 분의 인격과 임재 속에 젖어드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성령 안에서의 모험은 이렇게 시작된다.

믿음이나 성령에 대한 또 하나의 오류는 어떤 체험이나 현상으로 인해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환상이다. 성령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떡갈나무가 자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름을 주고 가꾸어야만 한다. 영적인 마술 막대기를 흔들어 우리에게 기름 붓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과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깊은 만남에서만 오는 것이다.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친교와 교통으로 계속되며 성장되어간다. 우리가 단 하루라도 교통하기를 게을리 하면 다음날부터는 조금씩 더 어려워진다. 믿음이나 성령 충만은 과거형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어느 시기나 순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 인생의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배움의 과정이다.

베니히는 다음처럼 기도할 것을 권한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저의 감정을, 저의 의지를, 저의 지성을, 저의 입술을, 저의 입을, 저의 귀를, 저의 눈을 드립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알립니다

함줄함을 출판부에서는 성도님들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시론, 수필, 제언, 시, 감상문, 간증 등의 원고를 기고하시는 분의 사진과 함께 교회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416-5181)

전쟁과 성경

김수호(희락 1구역)



성경이 충알을 막아준 월남전의 실화부터 먼저 소개하면, 베트남전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던 1970년 3월 18일 맹호부대 2대대 독수리1호 작전이 안케 계곡 근처에서 시작되었다. 대대장 김광현 중령의 부대에서 제일 먼저 중상을 당한 장병이 화기소대 통신병이었다. 네군데나 총탄을 맞고 실신한 이 장병은 즉시 미군 헬리콥터로 후송되면서 기내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그의 가슴에는 총탄이 군복을 찢고 관통한 흔적이 보였다.

미군 군의관은 심장을 관통한 것으로 판단하고 급히 군복의 상의를 벗겼다. 그런데 심장이 있는 가슴 부위가 아무런 상처도 없이 깨끗했다. 그래서 군의관은 피투성이가 된 좌퇴부를 비롯한 두 군데의 관통상부터 지혈을 하면서 의식을 잃어버린 장병을 회생시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군의관은 다시 한 번 총탄을 맞아 찢어진 군복 상의를 살폈다. 즉 탄환이 상의 가슴 부분을 흉측스럽게 뚫었는데도 가슴에 아무런 상처가 없어서 탄환이 어느 방향으로 관통했는지를 살폈다.

바로 그 순간 군복 상의 주머니 속에 조그만 포켓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군의관은 깜짝 놀랐다. 바로 이 장병의 심장을 향해 날아온 탄환은 성경을 뚫고 그 성경 뒤에 있었던 얇은 파월장병 수첩 사이에서 멈췄다. 그런데 군의관이 또 한 번 놀란 것은 성경을 뚫고 나온 탄환이 한 발이 아닌 두 발이었다. 두 발의 탄환을 손에 쥔 미군 군의관은 이 기적의 사건을 후일 누가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맹호부대 사단장에게 보고했다. 3일 후 사단장 김학원 장군이 군목을 대동하고 병원에 도착하여 이 장병을 위문했다. 이 사실은 곧 미국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고 국내에는 당시 전우신문을 통해 알려졌다.

그로부터 24년의 세월이 지난 1994년, 필자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같은 직장의 동료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KBS 제주방송총국 기술국에 근무하는 이영진 부장이었다. 필자는 이영진 부장에게 가장 궁금한 내용인 그날 그 전투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즉 방탄조끼가 되어준 그 포켓성경을 어떤 연유로 소지하게 되었느냐고 물어 보았다. 이영진 부장은 월남 파병을 앞둔 어느날 동료 사병 이흥부 이등병이 성경을 선물하면서 “전쟁터로 가는데 식사도 한 번 대

접 못하고 또 여비도 한푼 보태주지 못하는 제 마음을 이해하시오, 대신 이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전투에 나갈 때는 꼭 이 성경과 찬송가를 양쪽 포켓에 넣고 출전하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영진 부장의 기억으로는 당시 이흥부 이병은 가정이 매우 어려웠으며 파견되기 전 1사단 58포대에 같이 근무하면서 교회에도 같이 다녔고 집은 당시 서울역 앞 양동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한편 현재 제주에 살고 있는 이영진씨는 얼마 전(2002. 12. 10) 전화 통화에서 벌써 3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적은 잊을 수 없으며 그때 그 성경과 구멍 뚫린 군복도 잘 보존하고 있다고 했다.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는 것은 1,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연합군 상륙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은 상륙작전을 앞두고 이날도 변함없이 새벽에 일어나 부모님이 준 성경을 읽었다. 그가 항상 즐겨 읽는 구절은 스가랴 4장 6절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세계 전쟁사에 가장 치열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 세계가 두려워했던 히틀러와 롬멜의 군대를 상대하는 아이크, 성경에 손을 얹고 목상기도를 하던 그날 그 새벽의 그의 감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일찍이 아이젠하워의 부모님은 드와이트 무디 목사의 설교 때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 아들의 이름을 드와이트라고 지어 주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6시 15분 아이크는 연합군에 공격명령을 내렸을 때 히틀러의 부관은 새벽잠에 취해 있는 히틀러를 결코 깨울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히틀러의 새벽잠을 절대 깨울 수 없다는 부관 수칙 1조 때문이었다. 히틀러가 잠에서 깨어 났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연합군은 성난 파도와 같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 전쟁사에 맥아더 장군의 신앙은 그의 빛나는 무공 못지 않게 높이 인정받고 있다. 그는 오랜 군인생활 중에 긴급상황이 생길 때마다 권총과 성경을 항상 먼저 챙겼다. 특히 공식 행사장에서 연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빠진 일이 없었다. 1945년 8월 15일 전함 미조리 함상에서 거행된 일본의 항복식 연설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다.

한국전 당시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 사령관직에서 해임당한 맥아더 장군은 미국 상하양원 합동회의 초청연설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연설을 했다. 이 연설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만고불후의 명언이라고 했다. 사실 이 말은 맥아더 장군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그가 사관학교 때 가장 애송했던 군가의 가사를 인용한 것이다. 정작 더 훌륭한 연설 문장은 마지막 끝 부분에 있었다.

“하나님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던 한 노병은 지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1) 김수호님은 타 교회에서 장로장립 후, 우리교회로 이명하신 분입니다.

용어해설

변경된 새로운 기독교 용어 1

1. 천당(天堂) ⇒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또는 죽은 사람을 가리켜 “천당에 갔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천당’이라는 어휘는 우리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성경에는 물질로 된 유형의 집 또는 공간으로 이해하기 쉬운 천당의 개념이나 서술이 없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 땅의 종교 문화를 형성한 타종교에서 유래된다. 한민족의 일반적인 종교개념이나 사전적 풀이에서는 천당을 “하늘 위의 신의 궁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극락세계인 정토(淨土), 즉 깨끗한 국토, 곧 부처와 보살이 사는 번뇌의 굴레를 벗어난 아주 깨끗한 세상을 천당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천당의 사상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교도들이 즐겨 쓰는 ‘천당’이라는 어휘보다 한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하늘나라’로 사용함이 적절하다.

2.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 ⇒ 사용불가

기도하는 중에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영원히 존재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살아 있다는 표현은 ‘언젠가는 살아 있지 못할지 모른다’ 또는 ‘아직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 등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극히 제한하는 표현이 된다.

3. 시편 ○장 ○절 ⇒ 시편 ○편 ○절

많은 사람이 ‘시편의 장 절’을 나타낼 때, 시편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몇 장과 몇 절은 산문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의 구분을 신·구약의 다른 책의 구분을 나타내는 ‘장’과는 달리 ‘편’을 쓰는 것은 같은 한자를 쓰는 중국어 성경이나 일어 성경에서도 우리나라와 같다.

4. 주기도문 외겠습니다. ⇒ 주님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외겠습니다. ⇒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 외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예배시에 성도들은 결코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는 것, 즉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 한 마디 뜻을 바로 새기면서 음송(吟誦)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른 표현은 “다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다같이 사도신경 외겠습니다”라는 표현도 그와 같은 경우로서 옳지 않다. 즉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주기도문을 읽다”라는 표현이나 “사도신경을 읽다”라는 표현은 그 자체가 주기도나 사도신경을 진지하게 뜻을 생각함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소리내어 외는 행위이다.

주) 함즐함을 출판부에서는 제87회 대헌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통과된 고쳐야 할 기독교 용어 18개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어 19개 등 총 37개 용어들을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심기로 하였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신광철(청년2부)

저는 '좋은책 읽기 모임'에 처음 출석하게 되면서 제가 가까이 하고 있는 몇 권의 책을 소개도 하며 믿음 안에서 여러분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폴 투르니에의 기독교 심리학 저서를 통해서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는 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은 우리의 불확실성과 모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왼쪽을 향해 출발하게 하시지만 끝내는 오른쪽에 도달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의 후회 끝에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믿음 아래 왼쪽을 향해 떠나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한 걸음씩 이 사건에서 저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우리의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다"라는 투르니에 선생의 글은 저에게 큰 위안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 없는 사람을 다루는 목회나 상담자의 자세는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지구의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천 년 하고도 두 해를 간직한 채 우리 인간은 오늘날 이 시대에서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조국은 동방의 작은 나라로서 그것도 남과 북이라는 조국의 아픈 상처를 지니고 살고 있으면서 네 계절 중 가장 추운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찬란한 감격을 지닌 종교적 기념일이 아닌 상업주의적 발상으로 가득 찬 시끄러운 축제일로 물들이고 있지는 않나요. 집과 건물은 오색 찬란한 조명 기구와 색깔로 장식하고 이제는 오래된 관습과 습관처럼 퇴색해 버린 성탄절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집들은 하늘을 찌르지만 가슴은 하늘과도 먼 땅, 손을 성경 위에 얹지만 죽어도 성경은 펼치지 않는 이 땅이다"라고 한 흑인 소년의 노래 속에서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또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평소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려 노력하였는지, 그저 십일조, 감사헌금만으로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였다고 하기엔 우리에게 할 일이 많습니다. 이처럼 들떠 있는 이 계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분이시라면 평소 잊고 지냈던 분들께, 남아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수많은 억압과 박해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신 선진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들께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주님의교회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등 그 모든 연단과정이 광야에서 시작 되었음을 인식하고 오늘의 이 현실에서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양주군에서...

시

마음의 씨앗

박유진(소년부)



나는 내가 아팠을 때에
남을 헐다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아프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뒤돌아 보니 내게는
남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괴로울 때에
남을 헐다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뒤돌아 보니 내게는
남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 한쪽이 이상할 때에
남을 헐다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뒤돌아 보니 나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남에 대한 사랑, 믿음,
행복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물을 주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햇빛을 비추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영양분을 주겠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트면 나는
비로소
남을 헐다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강석영 목사



어느덧 2002년도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교회를 섬겼던 지난 8여년간의 세월을 감사와 아쉬움으로 접어야 할 시간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교역자에게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의 과분한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의 추억들은 언제까지나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1년 반 전부터 개척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해 오던 중에, 이제 금년 말로 부목사 임기를 끝내고 내년 3~4월 경에는 새 주님의교회를 창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없어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 나갈 비전있는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것이 새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가지 꿈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시는 꿈(마16:18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이셨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마28:19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의 꿈입니다. 저의 목회 목표는 오로지 이 주님의 꿈을 이루는데 집중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주님의교회에서 세움 받고 훈련 받은 목사로서 초창기 주님의교회의 건전한 목회 이념들과 노선, 개혁 신앙의 정신들을 철저하게 계승하고 회복시켜 나갈 결심입니다.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순수한 복음의 나팔소리가 온 땅에 퍼지도록 순교자적인 자세로 목회할 것입니다.

〈새 주님의교회의 비전〉

1. 주님이 주인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교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생각들이 우선 되어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역하는 교회를 추구하겠습니다.

2.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언제나 공동체성입니다. 거룩한 예배공동체, 따뜻한 친교공동체, 역동적인 선교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모델임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3. 인격적 목회와 내적 성숙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단순한 숫적 성장이나 물량주의에 오염된 대형교회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중보하며 같이 자라가는 진정한 신앙공동체로의 성숙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함께 눈물을 흘려 갈 것입니다.

4. 진정한 형제 교회로의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회 이념과 공동체성을 공유하는 형제 교회를 계속 개척해 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분립해서 Networking 목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에 함께 대처하고 협력해서 이 땅의 참된 기독교 문화 확장을 위해 공동 전선을 펼칠 것입니다.

5. 철저히 Faith Mission 원칙을 지켜 갈 것입니다.

목회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동역자들과 사역의 내용들과 재정 계획들을 하나님께만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곁에는 반드시 위대한 동역자가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모세 곁의 아론과 훌, 다윗 왕 주위에는 요나단과 도료들, 다니엘의 세 친구, 예수님의 12 제자들, 바울을 도운 수많은 동역자들.... 이들은 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지체와 협력자로, 혹 섬기는 자로 서로를 돕고 중보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과 이 사회 앞에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새 주님의교회를 창립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강력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합쳐질 때 새 교회는 생명나무로 견고히 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형제 교회의 심정으로 새 교회의 기도 후원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로 열쇠

1.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마을(눅 24:8~17). 3.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하나이며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책망 받은 교회(계 2:1~29). 5. 레위 사람으로 성전에 드리는 예물과 십일조를 받아 주관하던 사람(대하 31:9~19). 6.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은 사람. (창 6:1~22) 9. 아야의 딸로 사울의 첩이 되어 므비보셋을 낳은 사람(삼하 21:1~10). 11. 욥의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로서 온유하게 욥을 권면한 사람(욥 2:4~13). 12. 총독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함께 한 용사 중의 한 사람(대상 12:1~7).

세로 열쇠

2.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주께서 임하신다'는 뜻의 아람어(고전 16:20~24). 3.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이 사람의 서원에서 매일 변론함(행 19:1~12). 4. 야곱의 외숙이며 장인(창 29:1~30). 7. 바울과 함께 로마에 동행하였으며 바울과 함께 가르치고 고생한 사람(골 4:9~11, 행 27:1~8). 8. 하만의 아내로서 모르드개를 죽이라고 말한 여인(에 5:9~14). 10. 12사도중 한 사람이며 본명은 나다나엘(마 10:1~4). 11.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불로써 물리침(왕상 18:19~40).

성경퍼즐 지난호 정답

가로 1. 여호와삼마 3. 랍비 5. 라오디게아 8. 나시르
12. 로루하마 13. 우리아
세로 2. 호글라 4. 비느하스 6. 오네시모 7. 아비하일 9. 야이로
10. 모리아 11. 도마

정답 보내주시 분

이희순(자비 3구역), 김용숙(희락 12구역), 김은희(온유 8구역)님께
서는 교회 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2월 9일까지 정답을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문의 416-5181)

성탄절 기도

정해춘 안수집사(충성 5구역)



주여! 당신의 거룩한 눈물이
하이얀 눈꽃으로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오염되고 바람부는 험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주여 오소서.

주여! 당신께 바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올해도 가지고 있는 것은 죄악뿐입니다.

유향도 몰약도 황금도 없습니다.
매일 신문에 보도되는 대로 패악과 욕심뿐입니다.

주여! 그러나 무지로 인한 어리석음과 잘못은 용서
하시고
눈오는 밤, 은혜의 이불로 덮으소서.

새로 태어난 예쁜 아가들,
청순한 어린이들,
발랄한 청소년들을 주여 결코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한 해를 고독하게 살아온 자에게는
사랑으로 입맞춰 주시고
심령 깊은 곳에서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를
거룩한 찬송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소식

1. 문동학 목사님이 담임목사로 2003년 1월 1일부터 부임하셨습니다.
2. 2003년에 새로이 부임하신 교역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임교역자
김성관목사(1교구), 이창현목사(3교구), 정희성목사(6교구),
정현희목사(7교구), 김현령전도사(교육전임, 고등부)
○ 교육전도사
추정순전도사(유치부), 김진경전도사(유년부), 김보선전도사
(소년부), 유상렬전도사(청년1부)
3. 2002년 12월 31일부로 사임하신 교역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임교역자: 강석영목사, 이승렬목사
○ 교육전도사: 박경삼전도사, 김인혜전도사, 강치원전도사,
김기주전도사(12/8일 사임)
4. 2003년 교구와 담당 교역자가 정해졌습니다.

1교구	김성관 목사	5교구	미정
2교구	이상훈 목사	6교구	정희성 목사
3교구	이창현 목사	7교구	정현희 목사
4교구	김원재 목사	8교구	김병모 목사